

분만실 간호사의 근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 윤 정

서울여자간호대학교

Work Experiences of Delivery Room Nurses: A Phenomenological Study

Lee, Yunju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eaning and essentials in work experiences of delivery room nurses. **Methods:**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was used for this qualitative research. Ten delivery room nurse with more than 3 years of work experie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the nurses, between December 2012 and April 2013.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Nine theme clusters and four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1)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2) gap between reality and expectations, 3) difficulties with working in the delivery room, and 4) motivation to work in the delivery room.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ategies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of the delivery room nurses are necessary. Also, better policy are required to firmly establish the role of the delivery room nurses' role as recognized professionals.

Key Words: Delivery room, Nurs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분만은 여성 개개인에게 있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독특한 경험이며, 분만이 끝난 후에도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여성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가족 간의 관계를 영원하게 결정 지워주는 생애 중요한 순간이자 위기이므로[1],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좀 더 성숙된 삶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분만 환경과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출산횟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대다수의 여성들은 분만 경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길 원하였고

[2],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은 1차 간호를 제공하는 분만실 간호사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경영적 측면에서는 분만 건수의 감소와 함께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 분만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던 분만실은 현재 임신과 출산 전반적인 과정에 관계되는 분만 전 후 임신부의 다양한 관리 및 산과 수술실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2,3].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는 감소하고 분만실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병원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항상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 상태에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으로[4] 환자들이 지각하

주요어: 분만실, 간호사, 경험,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Lee, Yunju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 Seodaemun-gu, Seoul 03617, Korea.
Tel: +82-2-2287-1724, Fax: +82-2-395-8018, E-mail: yjlee@snjc.ac.kr

Received: Oct 5, 2016 / Revised: Mar 9, 2017 / Accepted: Mar 29,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연구방법

는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확대되고 포괄적인 분만실의 기능이 요구되는 최근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분만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만실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병원의 조직 경영과 의료 질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만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저출산에 따른 산과분야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거나[5,6] 이에 따른 분만실 임상실습의 변화[7,8]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분만실이라는 세계와 분만실 간호사의 경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만실 간호사 대상으로 업무활동 분석 연구[2]가 한 편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분만실 간호사들의 근무 경험 속에 녹아져 있는 그들의 책임과 역할, 이와 관련된 갈등이나 업무수행의 어려움, 문제점과 보람을 비롯한 본질적인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만업무가 주를 이루던 분만실 간호사의 업무가 임신 전후 여성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포괄적 역할로의 전환이 되는 현 시점에서 분만실 간호사들의 근무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양질의 여성건강간호 제공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인간 경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분만실 간호사들이 근무 과정에서 겪는 주관적 경험과 그 본질을 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학병원에 대한 의료 선호도가 높은 타 의료 분야와 달리 중소병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분만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분만실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 경험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의 근무 현황 및 문제점 뿐 아니라 분만실이라는 특수한 병원구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laizzi [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만실 간호사들의 근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근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생생한 근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연구 문제는 “분만실 간호사들의 근무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분만실 간호사의 근무 경험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기술하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연구자 준비

본 연구참여자는 근무 경험에 대한 심층적 자료제공을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여성병원의 분만실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현재 분만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로, 병원 간호부의 연구진입 동의 및 담당 수간호사의 도움으로 면담을 시작했으며 연구참여자의 소개로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출방법을 통해 분만실 간호사들을 소개받았다. 면담 전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 본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방법 및 언제든 중단 가능할 수 있음 등에 자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참여 동의를 제시한 10명의 간호사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현재 분만실 근무 중이며, 평균 연령은 33년 2개월, 평균 임상경력은 9년 3개월, 평균 분만실 경력은 8년 6개월로 나타났다. 분만실에서만 근무해온 경우는 8명, 다른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는 2명이었으나 신생아실, 병동 등의 산소아과 분야에 해당되었다. 참여자 중 3명은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학력은 전문대졸 4명, 대졸 5명, 석사 1명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7명이 기혼으로 그 중 4명은 자녀가 있었다.

질적 연구의 연구도구는 바로 연구자이기에, 도구로서의 신빙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방법에 대한 숙련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여성전문병원 및 분만실, 산부인과 병동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일반간호사 및 관리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을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현상학 및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등에 대한 질적 연구 강의 경험과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출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몇 편의 질적 연구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행하여 게재한 바 있어 연구과정을 엄정하게 진행하기에 준비가 되어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심층면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초기 연구자와의 신뢰 형성 및 개인적인 근무체험에 대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2~3회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라는 일반적이고 개방적인 내용으로 시작하여 점차 참여자의 병원 근무 경험, 근무과정 중의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분만실 근무 중 힘든 부분, 또는 보람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근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보조 질문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료분석에서도 같은 유형의 개념과 범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소요시간은 90~120분 정도로, 면담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연구자의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추가된 개념과 보충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필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는 참여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면담 완료 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Colaizzi [9]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녹취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반복하여 읽었으며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2단계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 강조되는 내용,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로 추출된 문장과 구절들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맥락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가 원 자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를 구성하였고, 5단계에서 구성된 의미들을 묶어 주제로 조직하였고 주제들을 다시 묶어 주제모음으로 조직하였으며, 주제모음으로부터 범주를 도출하였

다. 6단계로 지금까지의 참여자의 체험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조사된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하였다. 7단계로 본질적 주제에 대한 타당성 확인과정으로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현상학적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보여 주어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질을 검증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 [10]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엄정성을 확보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신뢰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해 인터뷰 동안 녹음기를 사용하고, 인터뷰 진행 사이에 진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질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든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고 참여자에게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인터뷰 내용의 필사는 인터뷰 직후에 바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료를 분석 결과를 질적 연구 및 인터뷰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와 언어학자에게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충분한 경험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충분히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통적인 경험들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감사성(auditability)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 내용과 자료분석과 코딩과정의 분석표와 일지, 메모 등을 모두 기록으로 보존하여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증성(confirmability)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고, 그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어떠한 관여나 의도적인 상황을 조작하지 않았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KHSIRB-12-003 (RA)).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담 전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중 녹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 후 연구자료 보관기간(3년)이 지난 후 바로 파기될 것이라는 것과 연구 진행과정에 노출된 개인적인 비밀 및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녹취된 전체 내용은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 신상 관련 정보를 삭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10명의 연구참여자로 부터 얻은 원 자료에서 추출한 주요 진술은 총 262개였다. 이들 주요 진술로부터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한 결과 94개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 의미로부터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참여자의 분만실 근무 경험을 나타내는 21개 주제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 주제는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도출된 9개 주제모음과 4개 범주로 구조화 할 수 있었다(Table 1). 각 범주와 이들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범주: 진로의사결정 요인

1) 주제모음: 희망적 경험에 대한 기대

주제모음 희망적 경험에 대한 기대에는 ‘죽음을 피하고 싶

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음’은 ‘대다수의 간호환경이 죽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마음’이며, ‘완치에 대한 기대감’은 ‘병원에서의 치료 및 간호의 결과가 긍정적인 종결로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임상 실습 과정 중간호사로서 감내해야 할 대상자의 질병 악화나 갑작스런 죽음 등을 경험하며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느꼈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간호학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음을 토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병이 아닌 임신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들을 돌보는 분만실 간호사의 모습은 죽음의 절망감을 피하고 분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분만의 종결은 대부분 임신 전으로의 회복이라는 기대감에서 분만실 근무를 선택했음을 표현하였다.

분만실은... 탄생과 출산을 축하해주는 기쁨의 장소로 느껴져서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좀 더 밝은 느낌일까.. 어둡지 않게 일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그런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분만실을 택

Table 1. Work Experiences of Delivery Room Nurses

Categories	Theme cluster	Themes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Expectations of a positive experience	· Hope to avoid patients' death · Expectations for complete recovery
	Expectations of professionalism	· Expectations of working in a specialty area · Expectations of obtaining a midwifery license
Gap between reality and expectations	Ambivalence about the delivery	· Blessed role as women · Considering the joy of childbirth as work/task
	Concerns related to professional role	· limitation of midwives' role · Absence of the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degree
Difficulties with working in the delivery room	Continuous tension	· Rapidly changing situations during deliveries · Nursing activities monitored by the families in the LDR
	Physical and mental burnout	· Physical injury during labor process · Excessive demands and personal humiliation from the laboring woman and the family · Conflict of opinions with doctors · Unclear allocation of duties
	Difficulties with self-development	· Insufficient rewards for heavy workload · Lack of educational advancement opportunities · Difficulties obtaining midwifery license
Motivation to work in the delivery room	Sense of accomplishment	· The wonder of birth · Family's appreciation for the nursing care
	Expectatio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 Preference for giving birth in a hospital specialized in obstetrics · Confidence from becoming an expert

LDR=labor, delivery, recovery room.

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

고통과 기쁨이 같이 존재하는 곳이라 산모들이 진통을 하고 있어도 그 아픔 뒤에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참을 수 있고 우울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이 좋았어요.(참여자 8)

2) 주제모음: 전문분야 근무에 대한 기대

주제모음 전문분야 근무에 대한 기대에는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기대’, ‘조산사 취득에 대한 기대’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희망 부서 선택 시 막연하게 전문분야, 특수파트에서 근무하는데 대해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실습에서 본 간호사들의 모습이 절대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환자의 순환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분만실의 상황이 인상적이었으며, 임신부마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분만 과정의 상당부분을 분만실 간호사가 주관하여 진행시키는 모습은 간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조산사 면허를 따겠다는 계획에 따라 분만실 간호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구체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분만실에서 근무하면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음을 표현하였다.

산모가 많을 땐 정신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평정 되고 병동으로 올리는... 분만실에서는 간호사가 메인 일을 거의 다 하니까. 웬지 더 독립적인 역할이 많을 것 같고(중략)... 산모가 난리를 치는데도 침착하고... 학생 때 느낌은 (분만실 간호사들에게서) 정말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참여자 2)

분만실에서 일한다면 나 자신에게 자부심, 만족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참여자 4)

스페셜 파트로 내진이란 것도 배울 수 있고... (중략) ... 나중에 따로 교육이랑 시험을 치러서... 조산사를 따려고 분만실 업무를 시작했고... 그땐 뭘 알지도 못했는데 말이죠(웃음)(참여자 6)

2. 범주: 기대와 다른 현실

1) 주제모음: 분만에 대한 양가감정

주제모음 분만에 대한 양가감정에는 ‘축복받은 여성으로서의 역할’, ‘분만의 기쁨을 일로 여김’의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

어 있다. ‘축복받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자신도 여성으로서 분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분만의 기쁨을 일로 여김’은 ‘축복의 순간을 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분만실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면서 임신부들이 경험하는 분만 진행의 고통을 공감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경건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여성으로서 분만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졌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오랜 시간 분만이 지연되고 임신부의 신음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는 순간에는 분만을 간호사에게 닥친 일로만 생각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기도 했다. 즉 분만실 간호사들은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분만과정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축복의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는 분만이 일로만 느껴져 임신부나 가족들과 분만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분만에 대한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이지만 분만실에서는 그게 매일 보는 일상이니... 근무 하다 보면 산모의 고통을 이해는 하면서도 좀처럼 협조해주지 않고... 잘 건디지 못하면 나도 힘드니까... 일적으로 환자를 대하게 될 때도 있어요.(참여자 6)

저도 아이를 낳아 보니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에 대한 열매가 있어서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보람은 좀 그렇고 정말 축복받은 거요.(참여자 7)

2) 주제모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주제모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에는 ‘조산사의 업무 한계’, ‘전문간호사 제도 부재’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조산사의 업무 한계’란 ‘실제 분만 환경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조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간호사 제도 부재’는 ‘여성건강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현재 없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병원 내 근무 중인 조산사들의 업무 또는 조산사인 자신의 업무 행태를 보며 분만의 마지막 과정까지 완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의사의 분만을 원하는 산모와 가족들, 병원의 원칙 등으로 인해 제한되는 업무에 한계를 느꼈다고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간호학 분야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실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교육을 받으려면 분야가 불분명해 자신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느낌을 갖는 등 전문직이라 믿었던

분만실 근무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분명히 전문직이긴 한데 전문직으로서 위상이나 인정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 3D 직종에 산부인과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이 딱 들지는 않아요.(참여자 3)

조산사 선생님이 얘기가 나와서 분만을 진행했는데 소송은 안 갔지만 보호자한테 멱살까지 잡힐 뻔 했어요. 왜 간호사가 얘기를 만나고요... (중략) ...지금은 전문간호사가 분야별로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조산사 면허가 있으면서 전문간호사도 없고 손해 보는 느낌도 있어요. 따기도 쉽지 않는데...(참여자 4)

3. 범주: 분만실 근무의 고충

1) 주제모음: 긴장의 연속

주제모음 긴장의 연속에는 ‘급변하는 분만 상황’, ‘가족분만실 내 모두에게 공유되는 간호행위’의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급변하는 분만 상황’이란 ‘시시각각 급변하는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가족분만실 내 모두에게 공유되는 간호행위’란 ‘분만 과정에서 임신부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공유되는 간호행위에 따른 긴장’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에 분만대기실이나 가족분만실에 임신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부터 한시도 쉬지 못하고 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남편과 함께 분만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가족분만실에 남편이 함께 입실함으로써 분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가 임신부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공유된다는 사실에 간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분만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자궁경부 개대가) 4~5 cm 라고 확인하고 잠깐 주사 재는데 산모는 Full이 될 때도 있고. 저희는 갑자기 변하는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일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길 하나요? 잘 해주면 당연한 거고...(참여자 3)

산모본이 무의식 환자도 아니고 가족들까지 함께 있으니까 들어갈 때마다... 또 제가 들어가면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는 거... 잘못 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신경쓰이

고, 감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가족분만실은 은근 스트레스 예요.(참여자 7)

2) 주제모음: 신체적 정신적 소진

주제모음 신체적 정신적 소진에는 ‘분만과정 중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보호자 및 임신부의 과도한 요구와 인격적 무시’, ‘의사와의 의견 갈등’, ‘불명확한 업무 분담’의 네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진통과정을 돕는 중 임신부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신체적 손상을 입기도 하고, 태아만출 상황을 돕는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배밀기 등을 시도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팔, 손목 등에 무리가 가기도 하였다. 또한 임신부와 가족들이 수시로 불러대며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진통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의사만 찾는 환자와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 뿐 아니라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병원 내에서도 분만을 오랜 시간 지켜본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사와의 갈등 및 산부인과 병동 및 신생아실과의 업무 연계과정에서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자기 우선으로 봐달라고 하거나 분만 진행할 때 욕하고 발로 차고 팔도 물어뜯는데 끝나고 나면 저희는 뭘 도와줬는지도 기억 못 하니 참... 서글퍼요. 또 내진조차 꺼려하는 유별난 분들 보면 출산을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오셔서 전혀 협조가 안 되니까요... 답답함(참여자 2)

환자를.. 적게는 2~3시간부터 길게는 이틀 정도를 계속 keep하고 돌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의견이 좀 더 정확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이(의사들한테) 제대로 안 들어질 때는 많이 속상하죠.(참여자 7)

(보호자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물 떠오는 것부터 하나하나 주문하고... 정말 우리한테는 인격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것... 게다가 신생아실이나 병동에선 조금이라도 일을 안 가져가려고 너무 방어적이라 우리 같은 여성병원에선 애매한 문제들을 분만실이 다 떠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참여자 4)

3) 주제모음: 전문적 능력 개발의 어려움

주제모음 자기개발의 어려움에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교육 기회 부족’, ‘조산사 취득의 어려움’의 세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분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을 조율하는 과중한 업무로 전문적 능력 개발의 어려움을

위한 시간활용의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역할 수행의 비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우와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기보다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적 발전에 대한 생각을 갖더라도 분만에 대한 심화교육 기회가 적고, 조산사 수련은 더욱 어려웠다고 하였다. 즉 전문간호사가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되어 병원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조산사 수련은 대학원 과정이 아니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 기관이 소수로 정해져 있고, 교육기간 등의 조건으로, 만약 자신의 근무기관이 조산사 수련기관이 아닐 경우 현재 직장의 퇴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산사가 되기 위한 결정이 쉽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공인된 교육이 아닌 민간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부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양은 가장 많죠. 분만 직전까지 저희가 거의 다 하는데 그만큼의 존중이나 보상은 좀 부족한 것 같구요. 서열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분만실 간호사가 분만실의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3)

조산사 면허증은... (중략) ...수련병원이 지방에 많고 아르바이트 금액처럼 인턴십 월급을 받으며 기숙해야 하는데 수련을 많이 받아주지도 않아서...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 따고 나서도 나아지는게 없으니 연차가 어린 선생님들은 그냥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고 나중에 전문간호사를 따는 게 낫다고도 해요...(참여자 9)

4. 범주: 분만실 근무의 원동력

1) 주제모음: 성취감

주제모음 성취감에는 ‘생명탄생의 경이로움’, ‘간호 결과에 대한 가족의 감사’의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힘든 진통 과정을 임산부와 함께 하면서 임산부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함께 공감하며 분만실 간호사로서 성취감을 느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분만의 힘든 과정 중 화를 내던 보호자나 임산부들도 분만의 종료와 함께 분만을 성공하도록 도와준데 대한 감사의 말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면 이전의 어려움은 잊혀지고 분만실 근무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

생각했던 대로 진행 시간이 맞아떨어질 때면 그냥 그때의 느낌이 저한테는 짜릿한 것 같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제 스스로에 대한 기특한 마음 같은 거

요.(참여자 8)

저에게 분만은 기쁨의 연속이자 설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즐기려고 하고요. 힘든 과정을 지나 가족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네요.(참여자 10)

2) 주제모음: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주제모음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는 ‘전문병원으로의 분만 집중 현상’, ‘전문적 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두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분만실 업무가 결코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대부분의 분만이 전문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만법 개발과 병원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병원의 움직임을 통해 분만실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또한 오랜 시간 근무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적 판단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앞으로 제도가 마련되면 전문간호사로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도 분만건수가 많지 않아서 여성 전문병원 쪽이 발전되지 않을까.. 분만실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희소의 가치도 있을 듯 합니다.(참여자 1)

분만실 간호사들 대부분 스스로의 자부심이나 일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전문적으로 클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요즘 병원 평가가 중소병원까지 시행되면서 예전보다는 더 나아질거란 기대를 해요. 그러다보면 모성 분야도 전문간호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꼭 따야죠.(참여자 6)

논 의

분만실 간호사들의 근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및 그룹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1개 주제, 9개 주제모음과 4개 범주로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4개 범주는 “진료의사결정 요인”, “기대와 다른 현실”, “분만실 근무의 고충”, “분만실 근무의 원동력”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근무 과정의 실체는 복잡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주요 관점은 분만실 환경의 특수성과 조산사 등의 간호전문직 개념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진로의사결정 요인”의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시절의 임상실습을 통해 막연하게 인식하던 간호사의 업무가 고통과 죽음에 무척 가까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음을 토로하였으며, 이와 대비되는 희망적인 탄생의 분만실 실습경험은 더욱 밝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각인되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간호실무 현장으로 나아가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격적인 완전한 성숙과 간호인으로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종종 죽음에 직면하거나 임종 환자 간호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죽음 부정, 죽음 불안 등 죽음과 관련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11]. 특히 학생 시기는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므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간호사가 된 후에도 임종과정에 있는 대상자나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12]. 따라서 간호학과 학부 교육과정 내에서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립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교육적인 전략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들은 막연한 특수파트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간호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전문적인 간호사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13]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조산사 면허취득 과정과 조산사의 업무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나 준비과정은 미흡하였다. 취업 시 자신의 적성 및 관심 분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부서 부적응이나 이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이 실무에 투입되기 전 준비부족[14,15]이 이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특수부서의 경우 업무의 적응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할 수 있는 만큼 간호학과 학부 교육과정에 실질적인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보완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기대와 다른 현실”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분만을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근무 태도나 환자에 대한 무관심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동떨어진 분만실 간호사의 업무와 조산사의 권한 및 책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데, 간호사에게 있어 전문직 자아 개념은 효율적인 간호성과를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우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밝혀진바 있다[16]. 그러나 최근의 중소병원 분만실의 현실은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구

조 상 간호사의 업무 상당부분이 보조인력(allied personnel)에게 이관되어 있는 반면 수련의를 비롯한 의사의 업무 일부가 간호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이관되어, 업무에 복잡성을 더 하여 과중한 일 부담으로 지치게 만들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17],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한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미국간호협회(ANA)에서는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교육과정에서 일 간호 분야에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전문가 집단의 인준을 받은 해당 분야의 탁월한 자이며, 자율적인 치료처방을 수행하는 자로서 마취간호사, 조산사, 임상간호전문가(Clinical Nurse Specialist, CNS), 간호실무자(Nurse Practitioner, NP)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NP는 신생아, 아동, 학교보건, 가족과 성인, 여성건강, 정신건강, 가정간호, 노인, 그리고 급성 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석사학위 및 2~3년간의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요구된다[18].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총 13가지 영역(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중앙, 중환자, 호스피스)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포괄적인 여성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사 영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조산원을 개원할 수 있고 분만개조를 포함하여 출산과정에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조산사이지만 분만실 내 권한, 역할 및 책임이 제한되거나 일반 간호사들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만이 집중되는 중소병원의 경우 그 규모가 다양하고 조산사나 분만실 간호사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의 정도가 과중하므로 병원 차원의 업무규정이 아닌 분만실내 조산사와 간호사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분만실 업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인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산사가 전문간호사와 동일한 인정 및 처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학교와 병원이 함께 교육하고 국가가 인정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조산사 교육 체제를 대학원 안으로 통합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18,19]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분만실 근무의 고충” 범주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분만실 근무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는데, 개인차가 큰 분만과정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과 가족이 참관하는 가족분만실 환경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감시당하는 느낌, 전통적인 산부들에 의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표현하였다. 간호사들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긴장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데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역할갈등을 경험하거나 이직을 고려하기도 한다[14,15,20]. 미국의 경우 분만실 간호사 대 환자비율이 1:1~2지만 한국은 1,000병상 병원의 경우 1:6~9, 2,000병상 이상 병원은 1:4 수준이며[21], 특히 분만이 집중되는 중소병원은 이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분만실 간호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의 과중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사들은 간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로 서서 일하거나, 환자의 부축 및 체위변경, 환자를 들어서 옮기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것, 환자의 이동을 돕는 행위 등으로 목, 어깨, 팔, 손, 등, 허리, 다리, 무릎, 발 등의 근육, 혈관, 신경조직에 손상이나 영향을 받는데[22], 분만실 간호사들의 업무는 상당 부분이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임산부들이 진통 중 무의식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할 경우 그대로 노출되어 보호받기 어렵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근거기반하지 않은 관행적 처치들을 간호사들이 수행하도록 요구받으면서 신체적 손상과 과부하 등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위협하는 정서적 소진은 감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육체적이며 인지적인 측면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구성원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만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된 간호술기를 확고히 하여 분만실 간호사들의 불필요한 신체적 위해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만실 간호사들이 근무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문제 중 하나는 자기개발의 어려움이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분야 선택에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던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상 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실습과정을 마치거나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조산사의 역할로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중사함을 명시하고 있다[23]. 그러나 국내 조산사 수련기관은 2016년 기준 5개 기관으로 이중 4곳은 지방에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1개 기관도 병원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분만실 간호사들의 교육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대한조산협회에서 출산준비교육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민간자격시험의 형태라 전문성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의 증가와 분만실 간호사의 역할

과 책임이 증가되고 있는 분만 의료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분만실 간호사의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만실 근무의 원동력” 범주에서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생명 탄생의 순간을 자신과 함께 했음에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적인 분만이 전문병원으로 집중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해 전문병원 분만실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여러 조직유효성 변수와 관련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24] 분만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나 분만실 환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조직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는 분만실의 업무 특성은 분만실 간호사들의 주관적 업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직무에 대한 만족이 질적인 간호서비스와 장기근속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키고 직무만족과 간호수행, 서비스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문성이므로[25] 분만실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분만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재직의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분만실 간호사들의 근무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분만실 내 계속되는 긴장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만실 간호사의 위상과 조산사 면허 취득이 어려운 현실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종료되는 분만실 근무의 특수성과 점차 전문병원으로 분만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분만실 간호사들에게 업무 중 지속되는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업무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성 등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근무경험의 의미를 바탕으로 분만실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정립하고 의무와 책임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분만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재직의도를 강화할 수 있는 병원체계의 개선과 함께 조산사 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 변화와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REFERENCES

- Nichols FH, Humenick S. *Childbirth education: Practice, research and theory*.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Company; 2000. 731 p.
- Kim HJ, Lim JS, Choi SM, Park SH, Park SH, An SE, et al. Analysis of activities and services of delivery room nurses based on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5;21(3):319-334.
- Jung SK. Delivery room's of university hospital also frequently at risk, down size, close [Internet]. Seoul: Dailymedi; 2013 [cited 2015 April 10] Available from: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no=766006>
- Kim MY, Choi HJ.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nurses' emotional labor includ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6;27(1):143-154.
- Kin HY, Moon CS. Integrated care center for high risk pregnancy and neonate: An analysis of process and problems in obstetrics.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2014;25(3):140-152.
- Lee YJ, Kim SH, Seol HJ, Chung SH, Choi YS, Lee KS, et al. Changes in statistics of maternal death in Korea (1995-2010).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2012;23(3):179-187.
- Park JH, Jung E, Ko JK, Yoo HB. Delivery training for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using birth simulator.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2008;51(9):950-956.
- Kim SA, Lee SK, Chae HJ.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simulation-based practice for obstetrical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3):180-189.
-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5. p. 301-331.
- Kim SH, Kim DH, Son HM.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11;14(3):144-151.
- Lee YE, Park HS, Son SK.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ing-being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Faith & Scholarship*. 2007;12(3):195-232.
- Gu HJ, Lee OS.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7356-7366.
- Lee YJ, Kim KB. Experiences of nurse turno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8;38(2):248-257.
- Kim JI, Son HM, Park IH, Shin HJ, Park JH, Cho MO, et al. Phenomenological study on burnout experience of clinical nurses who have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4):297-307.
- An MS, Yi YJ. The predictive factors on leave planning of nurses working at medium-sized hospital in the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1):323-334.
- Kim HO, Cho MO. Experiences of conflicts on job identity among the nurses of medium-sized hospital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06;7(2):13-25.
- Nurse. org. Nurse practitioner [Internet]. Bellevue: Full Beaker; 2015 [cited 2015 September 1]. Available from: <http://www.nurse.org/acnp/facts/whatis>
- Shin KR. Who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Korea midwife system? Seoul: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3 December. Report No.: PAMP1000039659.
- Park SE, Yeom EY. Experience of the role conflict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7):368-381.
- Kim SY. Percentage of patients per one nurse [Internet]. Seoul: Dailymedi; 2012 [cited 2012 January 18] Available fr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34242>
- Jeong EH, Koo JW. Analysis of musculoskeletal burdened work among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2006;25(3):97-103.
- Korean Midwives Association. Midwives education courses [Internet]. Seoul: Author; 2015 [cited 2016 November 15]. Available from: http://www.midwife.or.kr/insiter.php?design_file=3447.php
- Lee BS, Kang SR, Kim HO. Experience of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Application of focus group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1):114-124.
- Kim MH, Park CS, Seo JB. A study on effects of customer orientation factors in relation to medical services on the values of the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08;2(1):1-27.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birth environment has become increasingly focused on concern for maternal and neonatal well-being. Subsequently, in an increasingly demanding healthcare environment, the delivery room nurses face more challenges than ever.

■ **What this paper adds?**

This phenomenological study identified concerns related to professional role and physical and mental burnout as the main problems for the delivery room nurse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orale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delivery room nurse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better policy are required to support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recognition of the delivery room nurses.